아시아 개도국 경제전망 및 역내협력*

Stephen P. Groff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는 2012년 2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SEACEN(South-East Asian Central Banks) 총재회의에서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한 올해 경제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언급하며 아시아 금융이 발전하고 지역통합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금융위기에 따른 잠재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위기를 좀 더 잘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중대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 다른 지역 경제침체로부터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도국들에 대한 올해 경제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낙관적임**

— 아시아 개도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미만이지만 글로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섬

— 위기 직후의 급격한 반등에 따른 2010년 9% 성장 이후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선진국들의 무기력한 회복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지역의 경제회복을 불러온 경기부양책은 현재 대부분 철회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민간부문의 내수가 좀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역할확대는 이미 시작되어 ADB가 아시아지역의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것과 달리 지난해 7.5% 성장률에 이어 현재까지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하방위험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은 유로존 위기가 금융채널을 통해 파급될 가능성임

- 시장유동성에 미치게 될 즉각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경제침체의 재개로 글로벌 무역이 약화되고 아시아지역의 실질경제는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시장불안정은 또한 자본흐름 변동성을 증가시켜 거시경제 관리를 어렵게 할 것이며 상품, 특히 원유가격도 예상할 수 없음

* Stephen P. Groff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의 2012년 2월 17일 연설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http://beta.adb.org/news/speeches/monetary-policy-sovereign-debt-and-financial-stability

- 금융시스템은 원래 위기에 더욱 취약한 부문으로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디폴트 상황은 유럽 및 미국 내 은행들이 아시아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도국들은 외부로부터의 금융충격에 이전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만일 위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고 유로존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약화된 외부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할 때 내수확대를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는 여전히 요구됨

— 하방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면 시장반응은 금융위험전이와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음

- 유로존은 깊고 긴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 또한 기술적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로서는 이 경우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중대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시아 금융이 발전하고 지역통합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금융위기에 따른 잠재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위기를 좀 더 잘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음**

—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디폴트 상황은 글로벌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며 2008/09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음

— 위기경보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ASEAN+3 ERPD(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프로세스는 역내 감시(surveillance)를 위해 정보공유 및 협의를 이용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 ERPD 프로세스는 글로벌, 아시아, 그리고 각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자본흐름과 통화시장을 감시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 위험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강화를 돕고 동아시아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논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

—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을 창설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긍정적인 한걸음이기는 하나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고 1,200억달러의 규모는 분명 불충분함

- CMIM은 동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을 위해 중요하나 제한된 규모와 범위로 인해 많은 작업이 남아있음

— 협력은 또한 자본시장을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등 금융발전을 촉진함

-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도와 투자자저변 확대에 필요한 유동성 및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함

"Cooperation also helps financial development, such as deepening and broadening capital markets.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helps develop the region's bond markets, which provide the liquidity and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needed to attract a wider and more diversified investor base. In the long run, ABMI can help more efficiently channel the region's ample savings into investments—particularly in areas like infrastructure."

- Stephen P. Groff -

〈문의〉 T (02) 3771-0627 / E ssy@kcmi.re.kr